전법 일기

엄함 아닌 소통으로 다가가니 마음공부 참여 학생들 호응↑

올해부터 인연이 되어 마음공부를 했던 고등학생들과의 1년 마지막 수업을 지난주에 진행했다. 수업을 마치기 전에 "마음공부를 학생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부탁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스님이 담임 선생님으로 오시면 돼요" "교양 과목으로 채택되면 좋겠어요"라는 제안을 해 주었다. 그런 피드백이 너무 고마웠는데 돌아보니 처음부터 아이들과 소통이 잘 된 것은 아니었다.

3월, 처음에 학교에 갔을 때는 실내체육관에서 두 반이 함께 수업을 하였다. 그때 대학생 템플스테이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소통카드로 마음열기(윤회담 형식)' 수업을 했다. 그런데 사찰에서 할 때와는 딴판으로 학생들 호기심에 불을 붙여주는 기폭제 역할을 하면서 수업 분위기는 완전히 어수선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래서 첫 수업부터 아이들을 제압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동안 잘 쓰지 않던 카리스마를 뿜게 되었다. 그렇게 여섯 반을 만나고 나니 완전 기진맥진했다.

그리고 3월에 다시 한번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요가 수업을 하는 교실에서 촛불 명상을 시도했다. 촛불을 활용하면 마음공부를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이 굳어 있으니 아이들 따로, 나 따로, 불멍 따로 이렇게 안타까운 수업이 진행됐다.

그러면서 교재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림책을 준비했다. 수십 번을 수정하면서 보완했지만 자꾸만 원리 중심으로 구성이 되면서 내가 봐도 너무 딱딱하고 재미가 없었다. 그래서 만들어는 놓았지만 아이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가지고 갈 수조차 없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4월부터는 한 반씩 분반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장소도 리모델링된 진로상담실로 바뀌게 됐다. 그리고 학생들을 대하는 마음가짐도 바꿨다. '아이들을 제압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 마음을 먼저 알아주면서 하나가 되어서 수업을 하자.'

그렇게 마음으로 먼저 연결해 놓고 교실에 들어가니까 다른 말이 흘러나왔다.

"여러분,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가 봐요. 선생님은 너희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야기가 값지고 의미가 있으면 그것으로 수업을 해도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고요해졌다.

옆에서 수업을 도와주셨던 진로상담 선생님께서 "그동안 학생들을 엄격하게 대했는데 스님께서 지도하시는 것을 몇 차례 지켜보면서 학생들을 믿어주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 부드럽게 대하니까 아이들이 고민도 꺼내놓고 정말 수업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어요"라는 피드백을 해 주셨다.

출가하기 전부터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종교를 떠나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 꿈은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다듬어지고 있다.



혜벽 스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공일 스님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불교로 읽다** ⑩ 자가면역질환에 대하여

본질을 간과하지 말라

평안을 꿈꾸었는데 도달한 곳은 이에 상반되는 곳이라면? 우리 시대의 단면이 이와 비슷하다. 평화와 질서의 이름으로 전란이 일어난다. 사회질서 유지의 기능이 오작동하는 것이다. 건강을 위한 노력들이 질병을 불러오고 있다. 일종의 기능항진으로 인한 역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증상들은 자가면역질환(自家免疫疾患, Autoimmune disease)으로 검토 가능하다. 이 질환은 병원균이나 이물질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켜주어야 할 면역세포가 자신을 공격하는 증상들이다.

자가면역의 오작동은 모든 장기와 조직에 나타난다. 전신성 증상을 보이는 루프스는 물론, 특정 장기의 조직을 파괴하는 갑상선 질환과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 류마티스성 관절염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공통적 증상은 만성피로, 발열, 탈모 및 피부질환, 안구이상과 수면장애, 관절과 근육 이상, 체중변화, 우울증, 감각이상, 기억력 감퇴, 식욕변화, 소화장애 등이다. 남성보다 여성에게 압도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기술문명의 발달과 비례하여 이 질환이 대두된 것이기에 문명 질환의 다른 명칭에 해당한다. 이들은 한마디로 현대적 질병들의 총체적 집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알레르기나 아토피와는 다른 해석을 요구한다.

특이한 현상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면서 그 증상이 호전되기도 한다. 노화, 감염, 질병 등으로 인하여 면역기능이 저하되면 증상이 좋아진다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의료기술과 보건위생이 발달한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에 의존한 과도한 노력들이 우리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문명이 그 기저에서부터 붕괴하고 있다는 위험한 경고이기도 하다. 즉 본질을 간과하고 사소한 것에 집중하여 기능부전으로 진행되는 국면이다.

수행에선 본질인 '明'을 알아야
無 집중, 지엽말단 치우친 행위

면역체계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격언처럼 정교하게 움직인다. 사소한 차이를 감지하며 자기와 비자기를 감별하는 면역세포들은 정교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이 정교함이 지나쳐 자신을 적군으로 간주하는 디테일(detail)의 오류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디테일은 제거한다는 de와 꼬리를 뜻하는 tail의 합성어에서 알 수 있듯이, 잘려진 꼬리를 형상화한다.

꼬리라는 군더더기를 버리고 몸통을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볼 것을 보지 않게 되는 것, 즉 본질을 놓치고 부스러기에 집중하기에 엉뚱한 것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다. 디테일과 대비하기에 충분한 개념 교사자(較些子)는 '사소한 차이의 비교'라는 본뜻으로부터 비교대상에 상당하게 된다는 의미로 전환된 것이다.

물상의 일어남과 사라짐의 근본 자리에 무명(無明)이 놓여있다. 없어야(無) 할 것을 제거함으로 깨달음인 명(明)에 도달하는 일은 불교 수행의 기본이다. 이는 본질인 명(明)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가능하다. 그런데 없어도 되는 무(無) 자체에 집중하는 것은 잘라진 꼬리라는 거두절미의 입장이 아니라 지엽말단으로 치우치는 격이다. 자기를 스스로 공격하는 자학적 상태처럼 무(無)라는 겉껍데기를 뒤집어쓰고 있는 꼴이다. 밝음(明)을 구족하고 있음에도 어두워진 상태에 주저앉은 형상이다. 불교는 본래 내재한 성품으로서의 불성을 제시한다.

여래의 종자를 간직하고 있기에 중생의 성품을 '여래장'이라고 지칭한다. 무명을 떠나 도달하는 곳이 명의 세계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본래 밝음을 구족한 실천자 보리살타(보살행자)라 할 수 있다. 단 본질을 온전히 이해할 때 그러하다.

〈봉은사 포교국장〉

기자칼럼

'텍스트 힙'과 불교 출판

최근 출판계가 새롭게 활기를 띠고 있다. 독서는 이제 단순한 취미를 넘어 취향과 개성을 드러내는 문화로 자리 잡으며 젊은 층 사이에서는 책을 읽고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모습이 익숙해졌다. 이른바 '텍스트 힙'이라는 흐름 속에서 독서는 더 이상 지식만을 위한 도구가 아닌 개인의 관심사와 정체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창구가 됐다.

실제,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3~69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독서 현황 및 동네 책방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독서에 대한 관심도가 소폭 높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10, 20대를 중심으로 독서량이 과거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이 29, 26%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이는 어휘력 향상 등 자기계발의 도구로 10~20대가 독서를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텍스트 힙'이라는 트렌드가 불교계 출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불교 출판사들은 1쇄 발행 이후 수요를 빠르게 채우지 못해 2쇄에 들어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소수의 전문 독자층에 의존하는 출판 구조는 불교 출판사들이 불교적 가르침을 어떻게 대중에게 전달할지에 대한 고민을 깊게 만든다. 더불어 불교계 출판사가 10~20대가 소비할 만한 불교 서적을 기획하고 있는지는 고민할 부분이기도 하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동네 책방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다. 단순히 책을 사고파는 곳을 넘어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는 동네 책방과 협력해 불교 서적 전시와 독서 모임을 기획한다면 독자들이 보다 친숙한 환경에서 불교 서적을 접하고 소통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텍스트 힙' 시대에 불교 출판이 마주한 과제는 단순히 책을 내는 데 있지 않다. 불교의 가르침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접근성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독서 환경 속에서 불교 출판이 가진 고유한 가치를 지키면서도 대중과 접점을 넓혀간다면 더 다양한 독자층이 불교를 통해 자비와 지혜의 메시지를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정현선 편집국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아들 희귀병에 홀로 벌이는
엄마의 외로운 싸움

스리랑카 이주민 김제이씨 아들 노강현군
관절에 종양 자라는 희귀병, 이미 수술만 16번
성인 될 때까지 최소 10년간 수차례 수술받아야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